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 2024년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4.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일본
2. 출장목적 : 주요도시 산업건설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3. 출장기간 : 2024. 4. 21.(일) ~ 2024. 4. 26.(금)
4. 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위원	김영현	
	위원	윤지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민	
	시설6급	박정수	
	행정7급	김빛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문경력관나군	이헌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행정6급	김민수	
	녹지6급	김영욱	
	행정8급	박천효	

|| 목 차 ||

I. 공무국외출장 계획

1. 출장개요	2
2. 주요 방문기관	3
3. 세부일정	3

II. 방문국가 개요 4

III. 공무국외출장 수행 내용

1. 친환경 목재 활용 현장	9
2. 시가현 오미하치만 시청	11
3. 시가현 의회	16
4. 시가현 오쓰시청	18
5. 오사카시 이쿠노구청	20
6. 하마마쓰시 하마나코 꽃박람회	22
7. 야마나시현 전력저장기술연구소	24
8. 모에기마을	26

IV. 공무국외출장 후기 27

V. 보도자료 30

Ⅰ. 공무국외출장 계획

1

출장개요

- (목 적) 주요도시 산업건설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 친환경정책, 도시개발 현황 등 우수사례 파악
 - 시의회-시 합동 현장 시찰을 통해 현안 공유 및 신규 시책 발굴 등 중장기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
- (기 간) 2024. 4. 21.(일) ~ 4. 26.(금) / 5박 6일
- (방문국) 일본
- (참여자) 11명(산업건설위원회 위원 3, 공무원 8)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역 할	비 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 단장	
	위원	김영현	•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분석	
	위원	윤지성	• 정원도시 벤치마킹	
세종시의회	전문위원	박승민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 시의원 접견 내용 기록	
	시설6급	박정수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 자료수집 및 방문 내용 기록	
	행정7급	김빛나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 회계 및 일정 관리	
	전문경력관 나군	이헌주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 공무국외출장 동영상 촬영	
세종시청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 공무국외출장 총괄	
	행정6급	김민수	• 친환경, 생태계 복원 벤치마킹 • 일본어 통역, 접견 내용 기록	
	녹지6급	김영욱	• 산림자원 활용 벤치마킹 • 기념품 및 일정 관리	
	행정8급	박천효	• 정원 및 박람회 벤치마킹 • 회계 및 일정 관리	

2

주요 방문기관

연번	방문기관	방문목적 및 내용	비 고
1	시가현 오미하치만 시청	• 주민 참여,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2	시가현 의회	• 의회 간 파트너십 제안 및 협력 논의	
3	시가현 오쓰시청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방안 모색	
4	오사카시 이쿠노구	•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분석	
5	하마나코 꽃박람회	•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방안 모색	
6	전력저장기술연구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저장기술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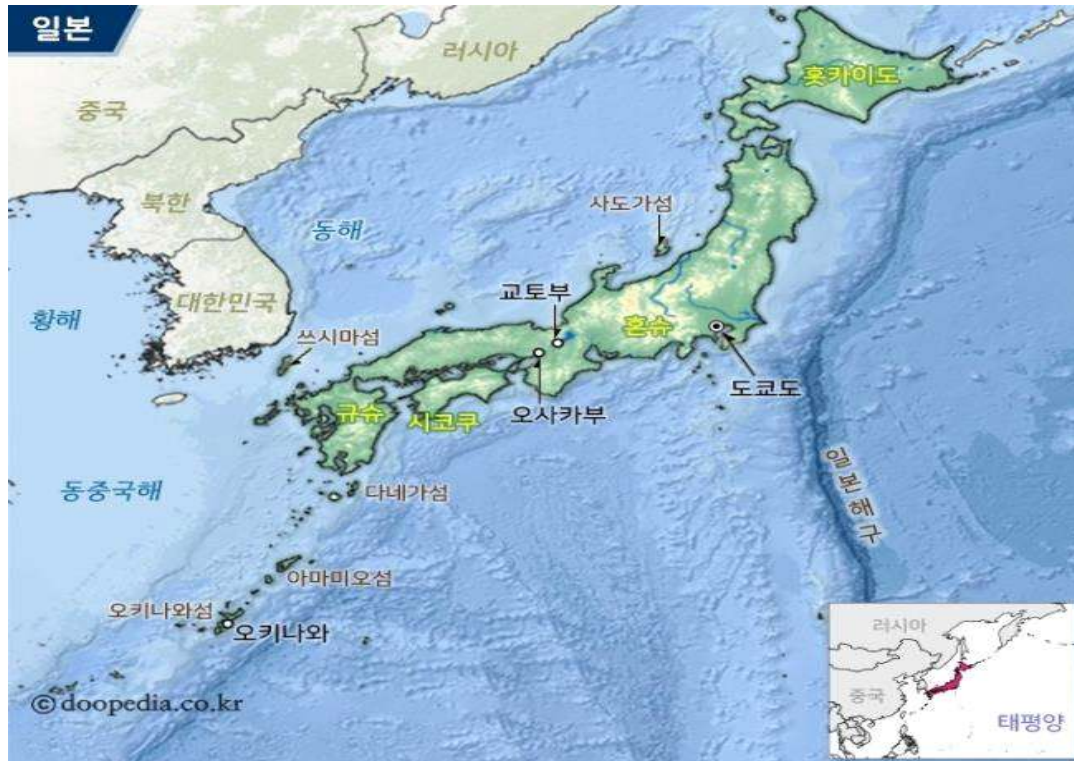
3

세부일정

방문지	날짜	주요 내용
1일차 교토부	4.21 (일)	• (항공) 청주 → 오사카(간사이 공항, 10:05~11:50) • (이동) 귀무덤, 친환경 목재 활용 현장 방문(우드블록 시공 현장)
2일차 시가현	4.22 (월)	• (오전) 오미하치만시청 방문, 신마치 거리(중요 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 (오후) 하치만보리(나룻배 투어), 라 코리나, 교림방
3일차 시가현	4.23 (화)	• (오전) 시가현 의회 부의장 예방, 상임위원회 간담회 • (오후) 오쓰시 관계자 면담
4일차 시즈오카현	4.24 (수)	• (오전) 오사카시 이쿠노구 시찰 • (오후) 2024 하마나코 꽃 박람회 시찰(하마나코 가든파크)
5일차 야마나시현	4.25 (목)	• (오전) 2024 하마나코 꽃 박람회 시찰(하마마쓰 플라워파크) • (오후) 전력저장기술 연구 사이트 시찰
6일차 도쿄도	4.26 (금)	• (오전) 모에기 마을 시찰 • (항공) 도쿄(나리타 공항) → 청주(19:35~21:55)

II. 방문국가 개요

■ 일반현황[국가]



- 국명 : 日本國(JAPAN)
- 위치 : 동북아시아
- 면적 : 약 37.8만km²(한반도의 약 1.7배)
- 인구 : 1억 2,512만명(2022, WorldBank)
- 수도 : 東京(Tokyo)
- 행정구역 : 1都 1道 2府 43縣(총 47개)
- 종교 : 신도(Shintoism), 불교, 기독교 등
- 정치현황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 양원제(참의원 / 중의원)
- GDP : 4조 2,311억불(2022, WorldBank)
 - 1인당 GDP : 3만 3,815불(2022, WorldBank)

■ 방문 도시 현황

1. 시가현 개황

□ 일반 현황

- (인구·면적·행정단위) 약 1,404,315명('24.2 기준) / 4,017km² / 13시 3군6정
- (위치) 일본 혼슈 간사이 지방 ※ 교토, 오사카 등과 유기적인 관계
- (현청 소재지) 오쓰시[인구 약 344,793명('24.2 기준), 면적 464.51km²]
- (기후) 전역이 대륙성 기후이지만, 북부는 호쿠리쿠·동해측 기후, 남부는 태평양측 기후 및 세토 내식 기후이며, 비와호로 인해 다른 분지에 비해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가 덜함

□ 주요 특징

- (주요 산업) 비와호는 시가현 총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공업생산 등이 활발하고 철도(도카이도 본선, 신칸센)가 발달
 - (공업) 케이한신(교토, 오사카, 고베)과 가깝고 땅값이 저렴하여 공장이 많이 위치하며, 제조업(전자·자동차 부품, 세라믹), 전통 산업 등 발달
 - (농업) 쌀이 주요 작물로 농지의 90%이상이 논이며, 동부 지역은 소 사육지, 남동부 지역은 녹차로 유명
- (경제) 1인당 주민소득 약307만엔(한화 3,200만원)으로 높은편임
- (대표 관광지) 비와호, 히에이 산의 엔랴쿠지(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히코네성, 구로카베 광장, 사가와 미술관 등 유명



비와호



엔랴쿠지 사원



히코네성

2. 시즈오카현 개황

□ 일반 개황

- (인구·면적·행정단위) 약 355만 명(‘23.10 기준)/7,777km²/23시 12정
- (위치) 일본 혼슈 중앙부 태평양 연안
- (주요 도시) 시즈오카시(현청 소재지), 하마마쓰시(박람회장 소재지)
- (산업) 일본 최대 규모의 거베라 생산* 등 꽃 재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본 녹차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녹차 산지

* ‘21년 기준 전국 거베라 출하량 1억 2,260만 송이 중 5,230만 송이 출하

□ 주요 도시

- (시즈오카시) 인구는 약 68만 명(‘23.10 기준), 면적은 1,411km²이며, 시즈오카현의 현청 소재지지만 인구 유출 문제가 현의 큰 현안
 - (주요 관광지) 슌푸성(모미지야마 정원), 미호노 마츠바라 해변 등
- (하마마쓰시) 2024 하마나코 꽃 박람회 개최지이며 야마하(악기), 스즈키(오토바이) 등 일본 주요 기업의 본사가 있는 공업도시
 - (인구·면적) 약 78만 명(‘23.10 기준) / 1,558km²
 - (주요 관광지) 하마마쓰성, 하마나 호수, 악기 박물관 등



Ⅲ. 공무국외출장 수행 내용

1

친환경 목재 활용 현장 방문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1.(일) 16:20~17:20/ 친환경 목재 활용 현장
- (면담자) 목재 제품 제조회사 관계자 등 2명
- (주요내용)
 - 친환경 목재 활용 사례(목재를 재활용한 우드블록 시공 현장)를 통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목재 이용 모델 구축 추진

□ 시사점

- 집행부에서 준비중인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환경을 목재로 대체하는 산림청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가능한 사례로,
 - 도시 내 건축, 거리 등을 지역 목재로 조성·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 저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고,
 - 관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산림청 공모사업)

구분	세부 내용
가로경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특화거리 조성(벤치, 가로등, 방음벽, 버스정류장, 가드레일, 안내판, 놀이시설, 데크로드, 휴게공간 등을 지역 목재로 전환) ○ 도시숲·정원 내 목재 경관 조성, 지역 역사·문화 연계 등
목재문화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시민 목공 체험센터 등 목재 교육 기반시설 조성 ○ 생애주기별 목재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목재 활용 목조건축물 조성 ○ 목재 기반 생활 SOC 조성, 목조 공공주택 조성·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목재 이용제품 생산기반 강화 ○ 시설, 인력, 유통 등(원목생산, 목재가공, 최종제품 등)

○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 간벌재, 폐목재를 주원료로 하는 목질 접착제(바인더)의 생성기술과 그 접착제를 이용한 성형 기술로 목칩화 한 것을 성형한 제품으로 시공한 블록들이 10년 가까이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연수사진



친환경 우드블록 시공 현장 방문

시가현 오미하치만 시청·시의회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2.(월) 09:15~11:00/ 오미하치만시청
- (면담자) 오카다 히코시 의장 등 오미하치만시청·시의회 관계자 10명
- (주요내용) 주민 참여(하치만보리), 기업 유치(라 코리나) 등을 통한 오미하치만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및 시의회 역할 공유

□ 주요 질의 및 응답

Q1 : 일본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하치만보리가 쇠퇴하였다가 재복원된 계기는?

A : 16세기 후반, 도시를 통치하던 도요토미 가문이 하치만산에 성(城)과 해자(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마을을 정비한 것이 오미하치만시의 기반이 되었음

- 하치만보리는 성의 해자로써 원래 성곽을 수비하는 용도였으나 수상 운송 중개의 역할로 호황을 누렸음. 시간이 흐른 뒤, 운송수단의 변화로 더이상 운송 기점으로 쓰이지 않게 되며 사실상 진흥으로 뒤떨어지게 되었음
- 시내를 횡단하는 약 2km의 강바닥에 퇴적되어 오염 물질이 쌓이는 등 도시 미관 해치는 하치만보리의 개선을 위해 시가현이 하치만

보리를 메워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지역보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

Q2 : 하치만보리 보존수경사업의 성공 요인은?

A :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지속가능한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보존수경사업이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하치만보리를 포함한 하치만 성 주변의 상점을 겸한 상인의 집들인 신마치거리가 중요 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음

Q3 : 현재 시민 참여 단체의 규모와 역할은?

A : 하치만보리를 지키는 모임이 1988년 결성된 이후 활동이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음. 2023년 11월에는 회원 약 20여명이 하치만보리 강가에 모여 꽃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함

Q4 : 자연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라코리나만의 특징이 있다면?

A : 라코리나는 2017년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의 협력, 교육 및 인식제고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사점

- 하치만보리는 오미하치만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인공 운하로서,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호와 오미하치만시를 연결하고 있음
- 50년전 주민주도로 이루어진 하치만보리의 자연생태계 보전 노력과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됨

- 현재보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고, 보존 활동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관광과 교육에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

○ 하치만보리의 환경친화적인 접근과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례는 우리 시 동지역 성장에 발맞추어 읍면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시사하는 바가 큼

- 향후,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연수 사진



오미하치만시청 · 시의회 관계자 면담

신마치 거리, 하치만보리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2.(월) 11:10~13:20/ 신마치 거리, 하치만보리
- (주요내용) 주민 참여 지역 활성화, 전통문화 보존 등 사례 시찰

□ 방문지 개요

<p style="text-align: center;">신마치 거리</p> <p>에도시대(1603~1868)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에 걸쳐 건축된 오미상인의 저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 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p> <p>오미하치만시는 2001년 「오미하치만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하치만보리</p> <p>오미하치만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길이 5km의 인공 운하로, 일본 최대 호수인 비와호와 시를 연결하고 있다.</p> <p>1950년대 이후 폐허로 변해 시가 매립하려 하였으나, 1975년에 시작된 시민 주도 운하 복원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p>	

□ 연수 사진



라 코리나(La Collina)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2.(월) 13:30~15:40/ 라 코리나 오미하치만
- (주요 내용) 입지 결정, 자연 친화적 경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

□ 방문지 개요

- (시설 개요) 라 코리나는 화과자(일본 전통 과자) 브랜드 ‘다네야’가 2015년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
- (자연 친화) 잔디로 덮인 언덕 모양 지붕이 주변 논밭 및 하치만 산과 어우러지며, 제품 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사용
 - (자연 체험 행사)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콘셉트로 곤충채집 및 무농약 신기술을 활용한 모내기와 수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나무 케이크) 독일어로 ‘나무 케이크’를 뜻하는 대표 상품 ‘바움 쿠헨’은, 유리벽으로 된 작업장에서 제조 과정을 관람객에게 공개

□ 연수 사진



라 코리나 시찰

3 시가현 의회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3.(화) 09:30~12:00/ 시가현 의회
- (면 담 자) 아리무라 구니토시 부의장 등 시가현청·의회 관계자 15명
- (방문목적) 시가현의 경제(지역활성화, 관광정책 등), 비와호 생태계 보전, 빈집 대책, 시가현 의회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상호 교류

□ 주요 질의 및 응답

Q1 : 비와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은?

A : 비와호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Mother Lake Goals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비와호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관광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MLGs(Mother Lake Goals) 전략이란 비와호의 환경을 지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13개의 목표이며, 비와호 버전의 SDGs(지속가능한개발)임

Q2 : 시가현의 빈집 현황과 대책은?

A : 시가현 주택 626,000호 중 빈집 81,200호(거주 목적이 없는 빈집 38,300호) 등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빈집은행을 통해 매매를 촉진하고 특정 빈집은 자진 철거 권유 및 현에서 철거비를 일부 지원하여 빈집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함

□ 시사점

- 시 중심부에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의 우수한 자원을 품고 있는 우리 시와 일본 최대 면적의 호수인 비와호를 품고 있는 시가현 방문을 통해 양 도시의 호수가 가지는 장점 등을 논의하며, 이번 방문 인연을 발판 삼아 향후 시가현의회와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음
- 또한, 시가현에서 추진하고 있는 ‘THE 시가파크’ 프로젝트*처럼 우리 시에 흠어져 있는 우수한 정원, 공원, 수목원을 묶어 중부권 최대의 정원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관광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THE 시가파크) 비와호(시가현 면적의 1/6)를 중심으로 시가현 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이 되는 프로젝트 진행

□ 연수 사진



시가현의회 부의장 예방



시가현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

4

시가현 오쓰시청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3.(화) 14:00~15:30/시가현 오쓰시청
- (면 담 자) 오쓰시 관계자 등 4명
- (주요 내용) 나기사 공원(도시공원) 시민프라자 존(27,800m²)에 민간 투자를 유도해 시 재정 부담 경감 및 공원 이용자 편리성 향상

□ 시사점

- 나기사공원 재정비사업은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됨
-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오쓰시 나기사공원의 재정비사업은 이와 같은 추진 과정을 거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가 도시공원 등 공유재산을 정비할 때 적용해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함

구분	나기사 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개요
2018년	민간 활용에 의한 카페, 음식점 출점 등을 허용하는 것을 규정
2021년	나기사 공원의 활용에 있어서 민간 활력 도입의 기본 개념을 책정
2022년	재정비 사업 예정자 결정 및 사업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공모설치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오쓰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시의회)
2023년	재정비사업에 관한 실시협정 체결 및 공사 착수(2025년 완공 예정)



□ 연수 사진



5

오사카시 이쿠노구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4.(수) 09:00~12:30 / 오사카시 이쿠노구
- (면 담 자) 오사카시 및 이쿠노구 관계자 등 6명
- (주요 내용) 주민 참여형 빈집 정비를 통한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지역 활성화 사례와 다양한 빈집 관리·활용 방안 벤치마킹

□ 방문지 개요

- (이쿠노구 개요) 오사카시 동남부에 위치(면적 8.37km², 인구 126,957명)
 - (인구 비율) 고령자가 많으며, 특히 ‘제주 4·3사건(1947~54년)’을 피해 건너온 제주도민들이 많이 거주하여 코리아타운 형성
 - (건축 특징) 노후 목조주택이 밀집돼 있고, 빈집 비율이 22.4%로 매우 높으며(오사카시 17.2%) 방치된 빈집은 6,900만 호에 이름
- (지역 특성) 노후화된 주택과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현대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폭이 좁은 길이 많아 재해 발생 시 큰 피해 우려

□ 주요 질의 및 응답

Q1 :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A : 건축된 지 7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1995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손상 속도가 빠르며 방화나 불법침입 등 범죄 장소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을 재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쿠노구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음

□ 시사점

- 이쿠노구는 주민 참여형 빈집 정비를 목표로 주택재생형, 지역마을
만들기 활용형의 두 가지 방법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함
 -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긴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도 적었고,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 우리 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및
빈집정비계획(5개년)에 따라 정원도시·미래마을 조성을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와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할 것임

□ 연수 사진



오사카시 및 이쿠노구 관계자 면담

6

하마마쓰시 하마나코 꽃박람회

□ 개 요

- (일시 · 장소) ❶ 2024. 4. 24.(수) 15:00~17:00 ‘하마나코 가든파크’/
❷ 2024. 4. 25.(목) 09:30~11:30 ‘하마마쓰 플라워파크’
- (견학 방법)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관계자 설명(장소 내 도보 이동)

□ 2024 하마나코 꽃 박람회

- (개최 개요) 하마마쓰시 하마나코 가든파크(4.6.~6.2./58일) 및 하마마쓰 플라워파크(3.23.~6.16./86일) 개최(개최지 간 7.2km/차량 10분)
- (개최 이력) '04년 AIPH 승인 국제 꽃 박람회(187일 운영, 545만 명 방문), '14년 꽃 박람회(87일 운영, 130만 명 방문) 등 10년 주기 개최
- (개최 배경) 코로나19와 디지털화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현지 경제계가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의견 제안
- (박람회 목표) 디지털 사회 속에서 꽃과 녹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람·자연·기술을 연결하는 디지털 정원도시(Garden City) 실현

□ 시사점

- 시즈오카현은 일본 문화·경제교류의 중심지로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13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이고, 특히 하마마쓰시에서는 꽃과 정원을 주제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여 2024년에는 20주년 하마나코 꽃 박람회를 개최함

- 박람회의 부지면적은 56헥타르(약 17만평) 규모로 볼거리가 매우 많으며, 디지털과 융합한 아트로 트렌드에 걸맞는 ‘이머시브 뮤지엄’ 운영을 통해 감상하는 회화로부터 체험하는 회화로 전환을 시도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음
- 우리 시는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중앙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묘목·화훼 산업의 거점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정원과 연계한 문화행사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2025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대내외적인 변수와 시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으로 1년 연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중장기적인 내실 있는 박람회 개최를 위해 2~3년의 준비기간 동안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 보임

□ 연수 사진



□ 개 요

- (일시/장소) 2024. 4. 25.(목) 16:00~17:30/ 전력저장기술 연구 사이트
- (면 담 자) 야마나시현 기업국 관계자 등 3명

□ 방문지 개요

- (태양광 발전) 일본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일본 내 1위)의 특성을 살려 요네쿠라산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 (연구 사이트) P2G 시스템 실증 시험을 통한 수소 및 연료 전지에 관한 연구, 교류의 거점으로서 전력저장기술 연구 사이트 정비
 - (사이트 역할) 태양광 발전, 수소, 유틸리티 등 풍부한 실증 자원과 입주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연구개발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20.10)하였고, 수소를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중요한 기술 자원으로 간주하였고,
 - 야마나시현은 수소 및 연료 전지 분야의 선두 주자로, 세계적인 연구센터가 밀집되어 수소 생산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 공동 개발을 하고 있으며,
 - 야마나시현, (주)도쿄전력홀딩스, (주)도코다케 등이 수소사회 구축을 목표로 P2G(Power to Gas) 시스템* 개발사업을 실시함
- * (P2G 시스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활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술(’21.6 생산 시작)

- 우리 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따라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자 함
 - '30년까지 '18년 대비 40%인 8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신재생 에너지 전력화는 '30년까지 30%, '50년까지 100% 실현 목표로,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 구축 등 친환경 수소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야마나시현의 '수소 및 연료 전지 밸리' 실현을 목표로 야마나시 대학, 요네쿠라산 전력저장기술 연구 사이트, 현지 기업간의 연구 개발에서 공급망 진입까지 제휴·협력한 사례를 통해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음

□ 연수 사진



야마나시현 전력저장기술연구소 시찰

8

모에기 마을

□ 견학 개요

- (일시/장소) 2024. 4. 26.(금) 10:00~12:00/ 모에기 마을
- (시찰 방법) 모에기 마을 관계자 설명(장소 내 도보 이동)

□ 시사점

- 모에기 마을은 기요사토 고원(해발 1,200m)에 자리한 일본 최대 규모의 자연 정원으로 현대 생활에서 잊히기 쉬운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며 자연을 즐기는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24.5.10.)에 따라 우리 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바, 모에기마을 방문을 통해 우리 시가 나아갈 생태관광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음

□ 연수 사진



모에기마을 시찰

Ⅳ. 공무국외출장 후기

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일본의 친환경 정책, 도시개발 현황 등을 직접 관찰하고 선진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특히,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 향후 전략사업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해 시의회-시 합동 국외연수를 추진하여 내실 있고 유의미한 공무국외활동을 도모하고자 했다.

시의회-시 합동국외연수는 드문 사례로, 5박 6일간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주무관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논의하며 더욱 뜻깊은 연수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첫 방문 기관은 시가현에 있는 오미하치만시청으로, 도시 계획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50년전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재복원된 하치만보리를 방문하여 깊은 울림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가현 총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호. 비와호 생태계 보전, 도시 계획 등을 학습하기 위해 시가현청을 방문했다. 비와호의 수질 오염 및 생태계 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 시

환경문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다. 시가현은 비와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 보호와 관광, 제조업 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고, 우리 시는 중심에 위치한 호수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호수를 품고 있는 양 도시의 장점을 계기로 향후 시가현의회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리무라 구니토시 부의장님과 사구치 요시에 후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가현 방문 일정 중에 일본 현지 언론에서 한국에서 온 세종시 공무원외활동단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가현 소재 신문사 두 곳에서도 우리의 활동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한 이번 공무원외출장을 통해 일본은 역사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배울점이 충분히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강조된 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점이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V. 보도자료

琵琶湖保全など意見交換

県庁で韓国・世宗市議と県議ら

琵琶湖の印象などを述べた世宗市議会のイ委員長（手前中央）ら＝県庁で



韓国・世宗市議会産業建設委員長は「琵琶湖を始めて訪れ、県議らと琵琶湖保全の取り組み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イ・ヒョンジョン委員長ら3人と市当局の職員、通訳を務めた同市環境緑地局長が、学生時代に天津市に住んでいた縁から実現した。市議会側が要望があった項目について県側の担当部長が説明。琵琶湖で赤潮が大発生したとき、空気がけだるくなったとき、水が濁ったとき、琵琶湖の生態系がどうなるかを心配している。琵琶湖の自然の豊かさを生かすことが、琵琶湖の暮らしにあること。琵琶湖問題は今後ますます深刻になる。SDGsをどう生かすかが、今後の世界的な共通認識になるのでは」と述べた。

一行は21日に来日し、22日は近江八幡市の八幡堀などを視察。23日午後には琵琶湖博物館（草津市）などを訪れた。（堀尾法道）

事故 事件簿

◆店のガラス板に車突っ込む 23日午後0時10分ごろ、彦根市西今町のドラッグストア「キリン堂南彦根店」で、市内の女性（76）が軽乗用車を止めようとして運転を誤り、店の出入り口前のガラス板に突っ込んだ。けが人はなかった。彦根署によると、女性は「アクセスとブレーキを踏み間違えた」と話している。

県庁の交通安全 22日

別	道	路	号	号
国	1	8	21	161
道	1	8	21	161
市	1	8	21	161
町	1	8	21	161
村	1	8	21	161
その他	1	8	21	161

名神高速道路
北陸自動車道
京滋バイパス
新名神高速道路
その他

ことしの累計

人身事故総件数 737（-76）
死者 7（-7）
負傷者 907（-75）
（カッコー内は）
（昨年比県警調べ）

△開閉し終り 24日（東証）

2024. 4. 24. 주니치신문
<https://www.chunichi.co.jp/article/889263>

初認定

県議 韓国の市議と懇話

滋賀県の産業・観光施策

滋賀県の産業・観光施策、琵琶湖保全の取り組みについて調査や意見交換をした。世宗市議からは「外来植物駆除の事業費はどれくらいか」との質問が出た。増える空き家への対策など両地域が抱える社会課題についても話し合った。イ・ヒョンジョン市議は「環境保全活動への市民参加が

滋賀県の産業・観光施策や琵琶湖保全の取り組みについて意見交換する世宗市議と滋賀県議の2日前（県庁）

滋賀の政治・行政 詳しく

昨年「チケットない人遠慮を」→5万人減
 滋賀知事 びわ湖花火発信「反省」

2024. 4. 24. 교토신문
<https://www.kyoto-np.co.jp/>

참고

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영상기록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iQTRGsSPbDM>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ruXssU04Yfl>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3편

<https://www.youtube.com/watch?v=KED890z3jT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4편

<https://www.youtube.com/watch?v=1FxOolOznkk>